

제주 관광객 유동인구 데이터 분석

Study on analyzing data about floating population in Jeju tourists

김 근 형* · 오 성 렬**

(Kim, Keun-Hyung · Oh, Seong-ryul)

목 차

- I. 서 론
- II. 관련연구 고찰
- III. 제주관광객 유동인구 데이터 분석
- IV. 결론

I. 서론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는 기존 산업이나 제품의 융합을 통한 가치 새로운 가치 창출과 함께 창업을 통한 경제발전의 도모를 목표로 한다. 성공적인 창업은 경제 활성화와 경제 규모의 확대를 가져오고 결국 경제성장에 기여하게 된다. 제주의 경우, 은퇴한 연령 층 뿐만 아니라 젊은 층의 유입인구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들은 카페나 펜션 등 관광 관련 시설의 창업에 참여하고 있다. 카페나 숙박업의 절대적 성공요인들 중의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해 주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시설의 위치에 유동인구가 많아야 할 것이다.

유동인구는 특정 지점, 일정 시간을 기준으로 해당 지역에 유입, 유출하는 이동 인구수를 의미하는 말로서, 지역 상업시설이나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며, 그 규모에 따라 지가나 건물임대료 등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신규 창업자들은 유동인구가 많아서 공간적으

* 제주대학교 경상대학 경영정보학과 교수

** 제주국제대학교 경영회계학과 부교수

로 수요가 높은 곳에 시설을 만들 필요가 있다. 창업을 위하여 시설을 확보할 때 유동인구의 총량뿐만 아니라 어떤 유형의 사람들이 움직이는지에 대한 정보도 중요하다(변미리 외, 2011). 규모가 같은 유동인구라도 이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소비성향이나 구매력 등이 다를 것이며 통행패턴 또한 상이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규 창업시설들의 입지 선택에 있어서 단순히 유동인구 총량이 많은 곳이 아니라 해당 업종의 수요층이 많은 곳을 선정하여야 할 것이다.

유동인구 자료는 지역의 동적 활동을 파악하기에 효과적인 지표로서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며, 휴대전화를 통해서 생성되는 통신자료로 유동인구를 추산하는 방법은 비용 효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경태, 2015). 정부3.0 정책의 일환으로 공공데이터포털에서는 유동인구 현황을 담고 있는 대용량 데이터를 개방하고 민간에서 각종 경제활동 및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데이터포털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는 가공되지 않은 원시데이터(raw data)의 형태이며 이를 가공하여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제주의 지역별 유동인구 현황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공공데이터포털에서 제공하는 ‘제주 관광객 유동인구 현황’ 데이터를 활용하여 R기반의 데이터분석을 수행하고 유의미한 정보를 도출하고자 한다.

II. 관련 연구 고찰

유동인구와 관련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 유동인구가 상업점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초기의 연구들은 주로 자료수집이 수월한 편의점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이경순(1988)의 연구에서는 편의점의 입지는 지역의 거주인구, 아파트 가구 수에 비례하나 소매업체 수, 서비스 업체수와는 뚜렷한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하였으며, 도로 인접성, 대중교통 인접성 등이 뛰어난 곳에 주로 위치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이호신(2003)은 편의점 매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인구, 경합도, 가시성, 매장면적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으며 실제 매출액에 주는 영향력은 경합도, 통행인구, 가시성의 순으로 나타난 반면 매장면적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막중(2011)은 편의점의 매출액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입점객 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연구하였으며, 분석결과 입점객 수는 보행량, 날씨 등의 외부적 요건과 매장면적 및 보도시설 여건 등 물리적 요건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편의점 이외의 다른 업종과 관련한 연구들도 많이 수행되었다. 황보윤(2008)은 미용서비스업을 대상으로 유동인구 및 인근 집객시설의 수가 매출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으며, 김경표(2008)은 전자제품 판매점에 대해 유동인구의 양적인 증가는 오히려 교통혼잡으로 인한 매출저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하였다. 김태원(2009)은 12개 제과점 사례를 이용하여 정성적 요인에 대한 비교분석을 한 결과, 우수한 제과점의 입지는 우수한 제과점의 입지는 유동인구가 많은 곳, 소비가 높은 곳, 소비자로부터 지리적으로 가까운 곳, 집객시설이 있는 곳, 통행인 중 20대 여자 비율이 높은 곳, 가시성이 좋고 경쟁점이 없는 곳 등인 것으로 분석하였다. 김천태(2013)는 침구점포의 경영성과가 입지, 소비자, 경쟁 등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점포주변의 유동인구, 거주인구 및 상품품질이 중요한 입지요인인 것으로 분석하였다.

이처럼 유동인구 관련 선행 연구를 통해 다양한 업종들이 유동인구에 의해 점포의 입지, 매출 등이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알 수 있다.

Ⅲ. 제주 관광객 유동인구 데이터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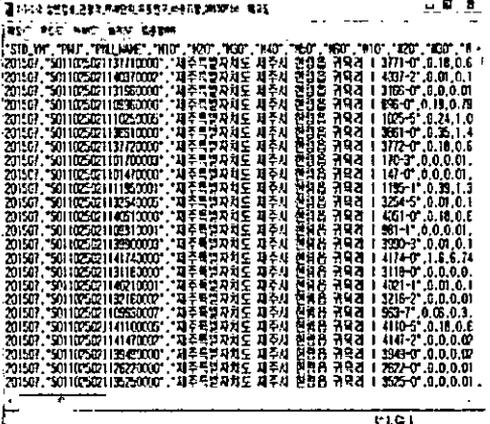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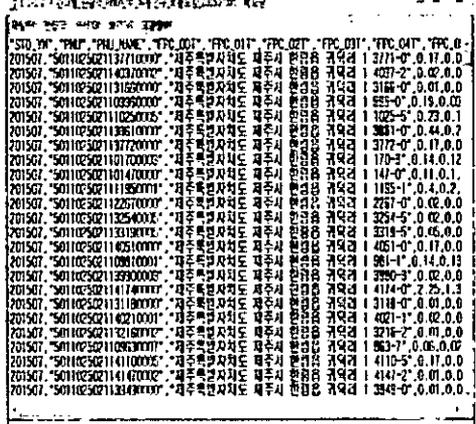
3.1 데이터 수집

행정자치부에서는 정부3.0 정책의 일환으로 민간에서 쉽고 다양하게 공공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건축, 상권 등 개방이 시급한 국가 중점개방 데이터를 선정하고 주제별, 기관별로 조금씩 개방해 오던 방식에서 '분야별 대용량 데이터'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 제주도에서도 파일데이터(File Data)나 오픈 API의 형태로 다양한 데이터를 공공데이터포털(<https://www.data.go.kr/#/L21haW4=>)에 제공하고 있다. 제주 관련 공공데이터 중에서 '제주도 유동인구 현황(관광객 및 도민)' 데이터는 2014년부터 2015년 사이의 월별 이동 상황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비교적 최근의 관광 성수기인 2015년 7월의 유동인구 데이터를 활용하여 데이터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논문에서 이용한 데이터는 '성·연령별 유동인구현황'과 '시간대별 유동인구현황'의 2가지 유형이다. 각각의 데이터파일은 5만여 건의 유동인구 정보를 정형화된 구조로 담고 있으며 약 20MB 정도 크기의 텍스트(txt) 파일이다. <표1>은 본 연구에서 사용한 유동인구 데이터의 구조(속성)와 실질적인 내용의 일부를 나타내고 있다.

<표 1> 제주 관광객 유동인구 데이터의 구조 및 내용(2015년 7월)

구분	성·연령별 유동인구 데이터	시간대별 유동인구 데이터
구조	STD_YM : 기준년월	STD_YM : 기준년월
	PNU : 지번코드 (총19자리, 10자리-동리단위법 정코드 + 1자리-일반/산 지번구분 + 4자리-본번 + 4자리-부번)	PNU : 지번코드 (총19자리, 10자리-동리단위법 정코드 + 1자리-일반/산 지번구분 + 4자리-본번 + 4자리-부번)
	M10 : 10대이하 남자 유동인구	FLOW_POP_CNT_00TMST : 00시~01시 유동인구
	M20 : 20대 남자 유동인구	FLOW_POP_CNT_01TMST : 01시~02시 유동인구
	M30 : 30대 남자 유동인구	FLOW_POP_CNT_02TMST : 02시~03시 유동인구
	M40 : 40대 남자 유동인구	FLOW_POP_CNT_03TMST : 03시~04시 유동인구
	M50 : 50대 남자 유동인구	FLOW_POP_CNT_04TMST : 04시~05시 유동인구
	M60 : 60대이상 남자 유동인구	FLOW_POP_CNT_05TMST : 05시~06시 유동인구
	W10 : 10대이하 여자 유동인구	FLOW_POP_CNT_06TMST : 06시~07시 유동인구
	W20 : 20대 여자 유동인구	FLOW_POP_CNT_07TMST : 07시~08시 유동인구
	W30 : 30대 여자 유동인구	FLOW_POP_CNT_08TMST : 08시~09시 유동인구
	W40 : 40대 여자 유동인구	FLOW_POP_CNT_09TMST : 09시~10시 유동인구
	W50 : 50대 여자 유동인구	FLOW_POP_CNT_10TMST : 10시~11시 유동인구
	W60 : 60대이상 여자 유동인구	FLOW_POP_CNT_11TMST : 11시~12시 유동인구
	M10_PROP : 10대이하 남자 유동인구 비율	FLOW_POP_CNT_12TMST : 12시~13시 유동인구
	M20_PROP : 20대 남자 유동인구 비율	FLOW_POP_CNT_13TMST : 13시~14시 유동인구
	M30_PROP : 30대 남자 유동인구 비율	FLOW_POP_CNT_14TMST : 14시~15시 유동인구
	M40_PROP : 40대 남자 유동인구 비율	FLOW_POP_CNT_15TMST : 15시~16시 유동인구
	M50_PROP : 50대 남자 유동인구 비율	FLOW_POP_CNT_16TMST : 16시~17시 유동인구
	M60_PROP : 60대이상 남자 유동인구 비율	FLOW_POP_CNT_17TMST : 17시~18시 유동인구
	W10_PROP : 10대이하 여자 유동인구 비율	FLOW_POP_CNT_18TMST : 18시~19시 유동인구
	W20_PROP : 20대 여자 유동인구 비율	FLOW_POP_CNT_19TMST : 19시~20시 유동인구
	W30_PROP : 30대 여자 유동인구 비율	FLOW_POP_CNT_20TMST : 20시~21시 유동인구
	W40_PROP : 40대 여자 유동인구 비율	FLOW_POP_CNT_21TMST : 21시~22시 유동인구
	W50_PROP : 50대 여자 유동인구 비율	FLOW_POP_CNT_22TMST : 22시~23시 유동인구
	W60_PROP : 60대 여자 유동인구 비율	FLOW_POP_CNT_23TMST : 23시~00시 유동인구
		TMST00_PROP : 00시~01시 유동인구 비율
		TMST01_PROP : 01시~02시 유동인구 비율
	TMST02_PROP : 02시~03시 유동인구 비율	
	TMST03_PROP : 03시~04시 유동인구 비율	
	TMST04_PROP : 04시~05시 유동인구 비율	
	TMST05_PROP : 05시~06시 유동인구 비율	
	TMST06_PROP : 06시~07시 유동인구 비율	
	TMST07_PROP : 07시~08시 유동인구 비율	
	TMST08_PROP : 08시~09시 유동인구 비율	

		TMST09_PROP : 09시~10시 유동인구 비율 TMST10_PROP : 10시~11시 유동인구 비율 TMST11_PROP : 11시~12시 유동인구 비율 TMST12_PROP : 12시~13시 유동인구 비율 TMST13_PROP : 13시~14시 유동인구 비율 TMST14_PROP : 14시~15시 유동인구 비율 TMST15_PROP : 15시~16시 유동인구 비율 TMST16_PROP : 16시~17시 유동인구 비율 TMST17_PROP : 17시~18시 유동인구 비율 TMST18_PROP : 18시~19시 유동인구 비율 TMST19_PROP : 19시~20시 유동인구 비율 TMST20_PROP : 20시~21시 유동인구 비율 TMST21_PROP : 21시~22시 유동인구 비율 TMST22_PROP : 22시~23시 유동인구 비율
내용		

3.2 데이터 분석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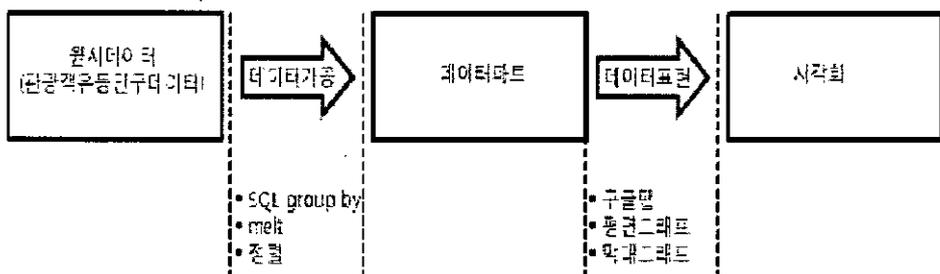
본 논문에서는 제주지역 상권분석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주의 각 지역별 유동인구 규모를 추출하고 서로 비교하는 형태의 분석을 실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그림 1>처럼(지면 관계상 일부만 나타냄), 제주지역을 시단위의 대분류와 읍·면 단위의 중분류, 동·리 단위의 소분류를 수행하였다.

번호	대(L1)	중(L2)	소(L3)
"1"	"제주"	"거점유동"	"소기업동"
"2"	"제주"	"구좌읍유동"	"소기업동"
"3"	"제주"	"구좌읍유동"	"소기업동"
"4"	"제주"	"구좌읍유동"	"소기업동"
"5"	"제주"	"구좌읍유동"	"소기업동"
"6"	"제주"	"구좌읍유동"	"소기업동"
"7"	"제주"	"구좌읍유동"	"소기업동"
"8"	"제주"	"구좌읍유동"	"소기업동"
"9"	"제주"	"구좌읍유동"	"소기업동"
"10"	"제주"	"구좌읍유동"	"소기업동"
"11"	"제주"	"구좌읍유동"	"소기업동"
"12"	"제주"	"구좌읍유동"	"소기업동"
"13"	"제주"	"구좌읍유동"	"소기업동"
"14"	"제주"	"구좌읍유동"	"소기업동"
"15"	"제주"	"구좌읍유동"	"소기업동"
"16"	"제주"	"구좌읍유동"	"소기업동"
"28"	"제주"	"구좌읍유동"	"소기업동"
"29"	"제주"	"구좌읍유동"	"소기업동"
"30"	"제주"	"구좌읍유동"	"소기업동"
"31"	"제주"	"구좌읍유동"	"소기업동"

<그림 1> 데이터 분류 기준

<그림 1>의 분류 단위를 기준으로 R패키지를 활용하여 데이터마트를 구성하고 시각화 (visualization) 기법을 적용하면서 관광객 유동인구데이터를 분석하였다. R은 오픈소스 (open source) 기반의 통계분석 도구로서 기본적인 통계분석뿐만 아니라 데이터마이닝, 빅데이터 분석, 시각화 등 막강한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원시데이터(raw data)인 관광객유동인구데이터를 가공하여 데이터마트를 구성하였으며, 이 데이터마트 상의 정보를 시각화 기법을 사용하여 보다 유의미한 정보로 표현하였다. <그림 2>는 데이터 분석 과정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원시데이터는 R에서의 SQL처리기능인 group by 등의 명령어 등을 통하여 요약데이터로 변환되었다. 변환한 데이터는 R의 melt 등의 기능을 활용하여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로 변환하면서 데이터마트를 구성되었다. 데이터마트 상의 정보들은 구글맵, 그래프 등의 기능을 활용하여 유의미한 정보로 표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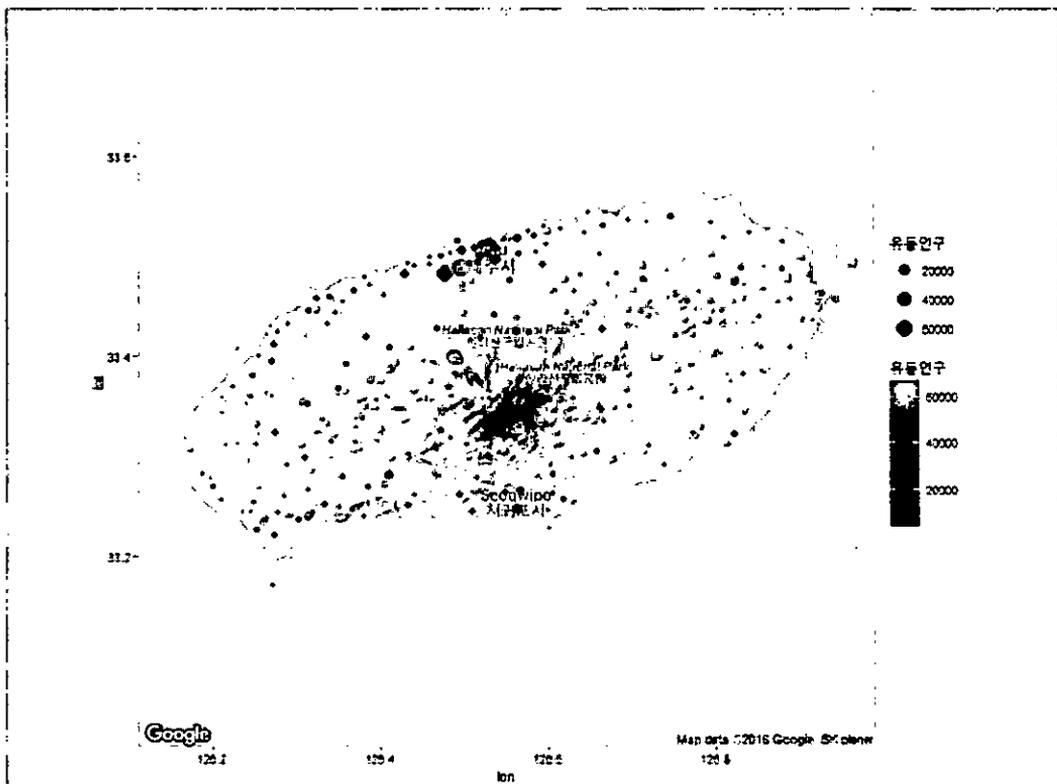


<그림 2> 데이터 분석 절차

3.3 데이터분석 결과

제주 관광객의 유동인구 데이터를 다양한 방법으로 분석하여 그 결과를 시각적으로 표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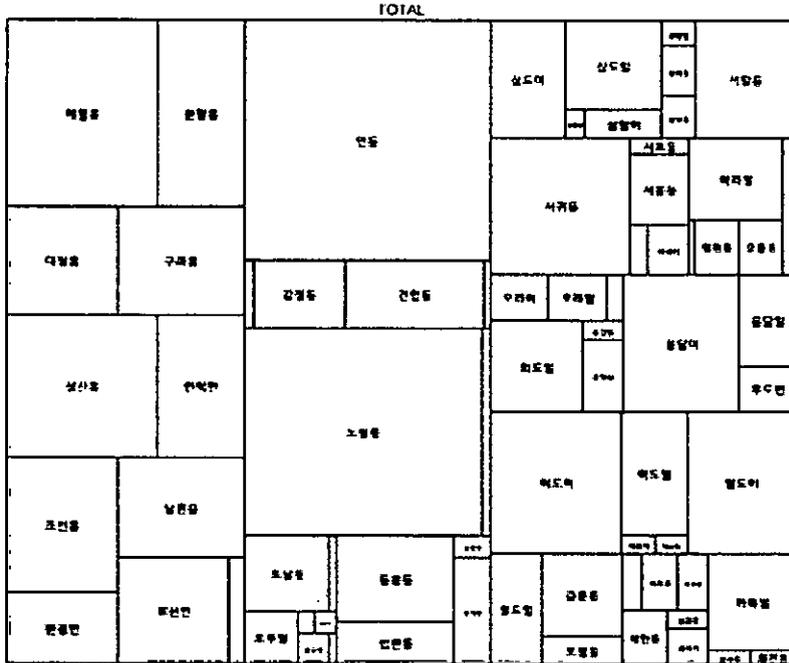
<그림 3>은 제주관광객 유동인구 분포를 제주도 지도상에 나타내어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예상한 바와 같이, 유동인구는 제주시(연동 및 노형동 등) 지역과 서귀포시(강정동 등) 지역에 집중되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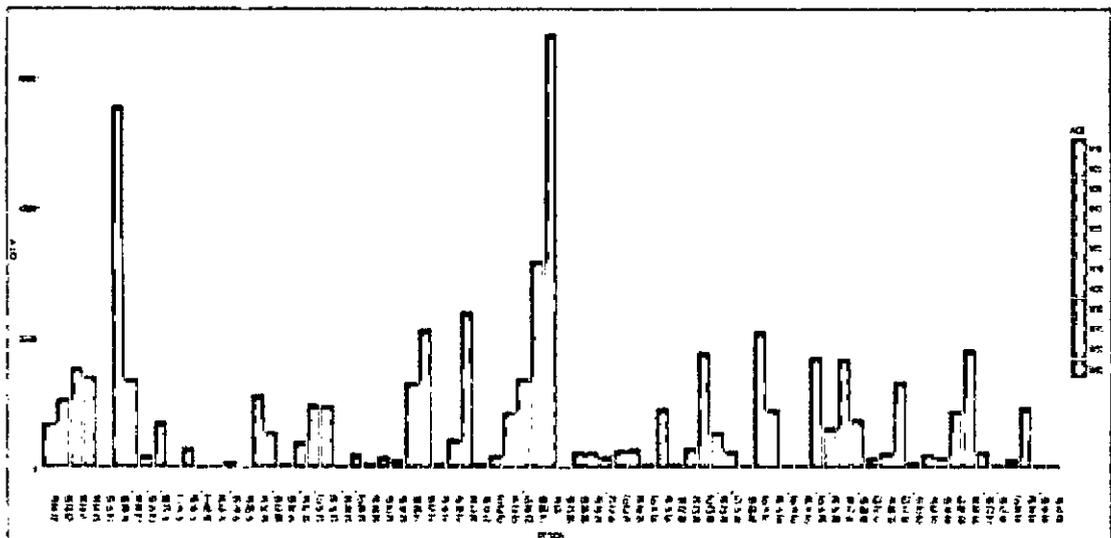
<그림 3> 제주 관광객의 유동인구 분포(2015년 7월 기준)

<그림 4>는 제주지역을 대분류(제주 vs. 서귀)하였을 때, 각 지역의 유동인구 규모를 비교하여 나타내고 있다. 제주시 지역은 약 50만여명, 서귀포시 지역은 약 17만여명의 유동인구가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5>는 제주지역을 중분류(읍·면단위)하였을 때, 각 지역의 유동인구 규모를 비교하여 막대그래프로 나타내고 있다.

<그림 6>은 제주지역을 중분류(읍면단위)하고 평면그래프 기법을 사용하여 각 지역의 유동인구 규모를 비교하여 나타내고 있다. 연동, 노형동, 애월읍, 서귀동, 성산읍 등 지역에 유동인구가 많이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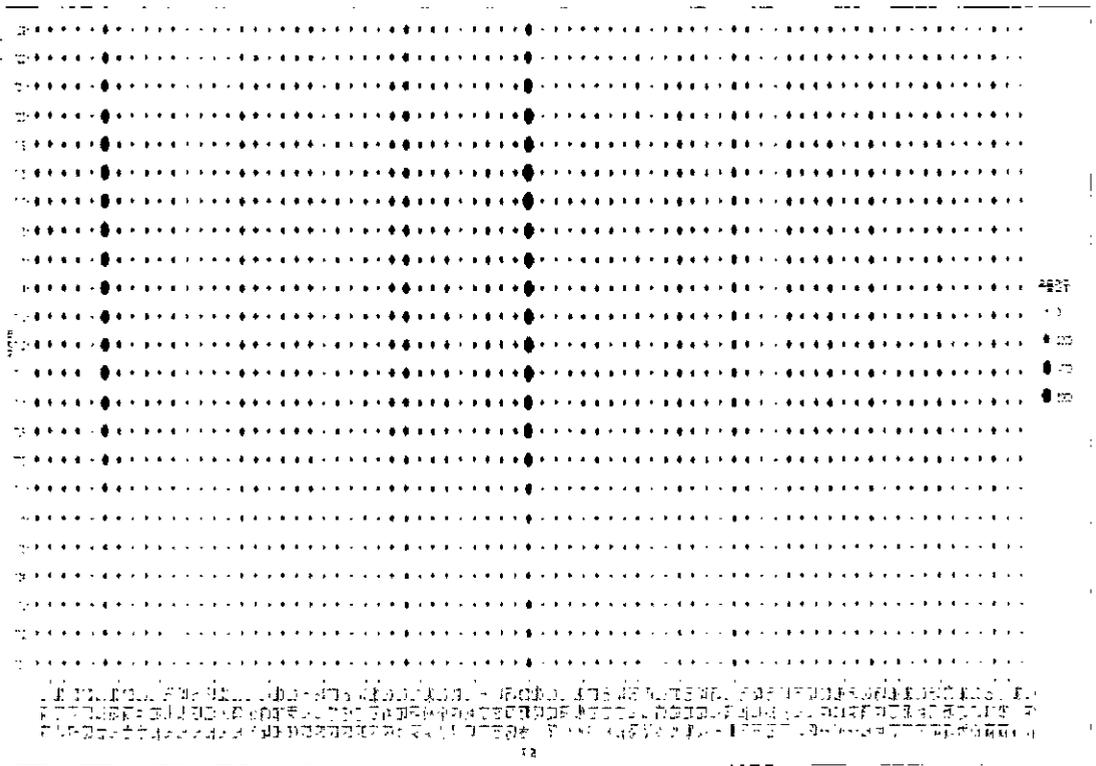
<그림 6> 중분류 기준 제주 관광객의 유동인구 분포(평면그래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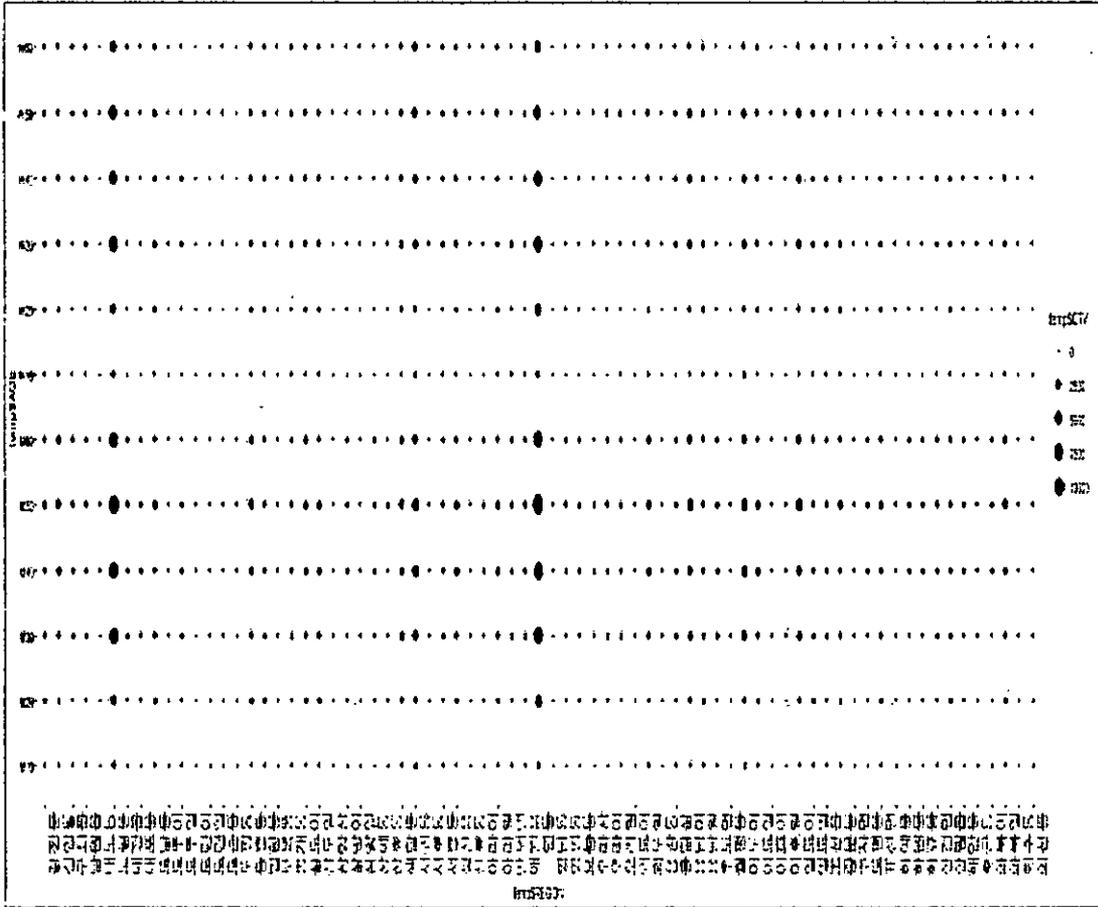
<그림 7> 중분류 기준 제주 관광객의 유동인구의 나이별 분포

<그림 7>은 제주지역을 중분류(읍·면단위)하고 각 지역의 성별·나이별 유동인구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M10은 남자 10대를 의미하고 그래프에서는 주황색으로 표현되고 있다. W60은 여자 60대를 의미하고 그래프에서는 빨간색으로 표현되고 있다. M40은 남자 40대를 의미하고 녹색이며 M50은 남자 50대를 의미하고 초록색으로 표현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남자 40대와 50대(M40, M50), 여자 40대와 50대(W40, W50)이 타 나이 대에 비하여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8>은 제주지역을 중분류(읍·면단위)하고 각 지역의 유동인구 분포를 시간대 별로 보여주고 있다. 그래프에서 X축은 각 지역을 나타내고 Y축은 시간대(0시~ 23시)를 나타내고 있다. Y축의 T0는 0시, T1은 1시, T12는 12시, T19는 오후 7시 등을 의미한다. 유동인구의 규모는 검은 원의 크기로 표현하고 있다. 예상한 바와 같이, 전반적으로 낮 시간대에 유동인구가 많이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전화통화량 기준으로 유동인구를 측정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앞에서의 결과와 비슷하게 연동, 노형동에서 오전 8시~오후 8시 사이에 유동인구가 많이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8> 중분류 기준 제주 관광객의 유동인구의 시간대 별 분포



<그림 9> 중분류 기준 제주 관광객의 유동인구의 나이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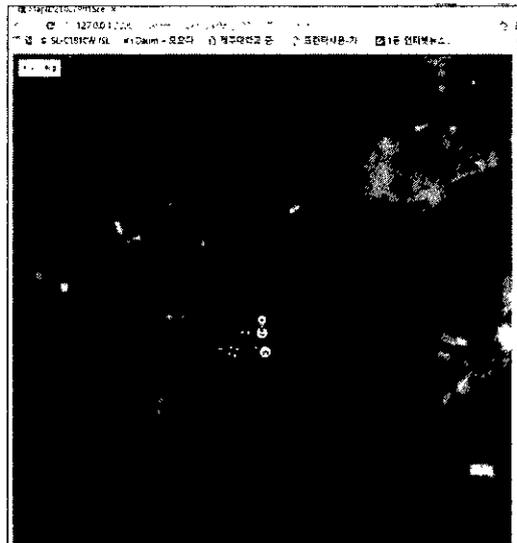
<그림 9>는 제주지역을 중분류(읍면단위)하고 각 지역의 유동인구 분포를 성별·나이별로 나타내고 있다. 그래프에서 X축은 각 지역을 나타내고 Y축은 성과 나이를 나타내고 있다. Y축의 M10은 남자 10대, M20은 남자 20대, W10은 여자 10대 등 M10~W60까지의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연동 및 노형동 등에서는 40대와 50대 연령의 유동인구가 많고 여자보다 남자의 유동인구가 많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0>은 제주지역을 소분류(동·리단위)하고 각 지역의 유동인구 규모 순위를 나타내고 있다. 1위와 2위는 중분류 때와 같이 연동과 노형동이 차지했으나 3위는 애월읍을 제치고 서귀동이 차지하였다. 20위권 이내에는 표선동과 중문동을 제외하고 시내 지역이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1>은 연동지역에서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곳을 구글맵으로 나타내고 있다. 이 지역은 신라면세점 부근인 것으로 나타났다.

순위	REGION	AGE	QTY
1	연등	TOTAL	66969
2	노형등	TOTAL	55804
3	서귀등	TOTAL	21513
4	이도이등	TOTAL	21160
5	용담이등	TOTAL	17955
6	일도이등	TOTAL	17327
7	색달등	TOTAL	13287
8	등롱등	TOTAL	11506
9	건입등	TOTAL	10762
10	삼도이등	TOTAL	9920
11	삼도일등	TOTAL	9823
12	화북일등	TOTAL	9520
13	외도일등	TOTAL	9446
14	이도일등	TOTAL	9168
15	고성리	TOTAL	8960
16	아라일등	TOTAL	8754
17	표선리	TOTAL	7837
18	중문등	TOTAL	7649
19	도남등	TOTAL	7356
20	강정등	TOTAL	7007

<그림 10> 소분류 기준 제주 관광객의 유동인구 분포의 지역 순위



<그림 11> 중분류 기준 제주 관광객의 유동인구 1위 지역의 구글맵 표현

IV.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제주지역 상권분석의 탐색적 고찰 차원에서 공공데이터포털에 공개된 제주 관광객 유동인구 데이터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 제주 관광객 유동인구 데이터는 2015년 7월의 유동인구 상황을 지역별·성별·나이별·시간대 별로 구분하여 포함하고 있었지만, 가공되지 않은 원시데이터 형태(텍스트화일)로 표현되어 있었기 때문에 데이터분석 기법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은 분석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제주시 지역이 서귀포시 지역에 비하여 2배 이상의 관광객 유동인구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넓지 않은 제주지역이지만 아직까지도 산북지역과 산남 지역의 관광 관련 경제 인프라의 격차가 현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둘째, 제주시 지역에서도 연동이나 노형동 등 신제주 시내 권에 집중되어 유동인구가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연동은 지역의 중분류와 소분류 단위에서도 유동인구 규모에서 1위를 하였다. 연동지역 내에서 유동인구 규모가 가장 큰 곳은 신라면세점 부근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중국관광객의 급증과 함께 면세점을 중심으로 한 쇼핑 관광 활동의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셋째, 시내 권 이외의 지역에서 유동인구 규모가 비교적 큰 곳은 중문, 표선, 애월 등이었다. 중문과 표선은 제주지역 대표 관광지 중의 하나이므로 유동인구 규모가 큰 것은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애월읍의 경우는 마땅한 대표 관광지가 없는 상황에서 이외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애월 지역은 공항과의 근접한 위치, 신엄 지역의 아름다운 해안가, 제주의 타 지역과 상대적으로 차별되는 건조한 기후 등의 영향으로 인하여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것으로 유추 해석할 수 있다.

본 논문은 많은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지만 발전 가능성 또한 내포하고 있다. 그 한계점으로서, 관광객 유동인구 데이터의 일부(2015년 7월)만을 분석하였기 때문에 단순한 분석기법을 적용할 수 밖에 없었으며 그 결과 또한 유의미한 것이 많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러나, 전화통화 등의 활동을 데이터화한 사실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하였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한 신빙성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향후, 2014년~2015년 사이의 데이터를 연계하여 분석을 할 계획이며 더 많은 유의미한 정보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참고문헌

- [1] 김경태, 이안목, 광호찬, 민재홍, “유동인구 추정 시 통신자료의 활용에 관한 연구”, 서울도시연구, 16권, 3호, 2015.
- [2] 김경표, “전자유통업체의 입지적 특성이 매출액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산업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 [3] 김태원, “베이커리의 입지분석 연구”,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 [4] 김천태, 민규식, “침구점포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전자통신학회논문지, 8권, 1호, 2013.
- [5] 변미리, 서우석, “도시 거리의 주간활동인구 측정과 해석”, 조사연구, 12권, 2호, 2011.
- [6] 이호신, “편의점의 매출에 영향을 미치는 입지적 요인”, 충북대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7] 최막중, 신선미, “보행량이 소매업 매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분석”, 국토계획, 36권, 2호, 2001.
- [8] 황보운, 하규수, “미용서비스업체의 입지요인과 경영성과에 관한 실증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8권, 11호, 2008.

국문개요

제주 관광객 유동인구 분포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는 관광시설 인프라 확충과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공공데이터포털이 개방하고 있는 다양한 빅데이터 중에서 제주 관광객 유동인구현황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산북지역과 산남지역의 유동인구 분포가 불균형 상태였고, 둘째 신제주 연동지역 면세점 부근의 유동인구 규모가 가장 컸으며, 셋째 애월읍 지역의 유동인구 규모가 타 비시내권 지역에 비하여 높았다.

이 논문은 제주 관광객 유동인구 데이터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탐색적 고찰 차원에서 분석을 하였기 때문에 유의미한 결과들은 많지 않았지만, 사실(fact)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향후, 본 논문에서의 분석기법을 활용하면서 데이터를 확장 및 연계하여 분석한다면 많은 유의미한 결과들이 만들어질 것이다.

주제어: 유동인구, 제주, 공공데이터포털, 관광, 빅데이터

